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장 경 국
(주)선진 전무

'93년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93년은 말 그대로 격변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사회의 각부문, 특히 권력과 관계된 부문에서 개혁이다, 사정이다 하여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권력의 아름답지 못한 이면이 밝혀지고,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경제부문에서도 돈호름의 어두운 줄기가 밝혀지고, 금융실명제라는 획기적인 처방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의 또 한편에서는 '구포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부안 여객선침몰사고'같은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대형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혁이나 사정과 같이 정치권 저 높고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가진자의 불안'같은 것은 우리들 서민에게는 그저 하나의 가십정도로만 회자되고 있을 뿐 실제로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인식에서 그 진폭만 커졌을 뿐 새로운 사실의 인식이 없으므로 이들의 인식은 외상적일 수 밖에 없다. 잘되면 좋고, 안되어도 단지 안타깝기만 할 뿐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 오겠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사고 소식에 더 긴장하고 관심이 가게 된다. 이들 사고는 언제든지 나 자신의 문제로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일을 철저히 하

지 않으려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일일이 예를 들 것도 없이 자기 할 일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이 요령이 있다'느니 하면서 심지어는 무능한 사람으로 까지 취급하는 지경이다. 매사를 '적당히', '요령껏' 해결하려고 한다. 내용보다는 겉치레가 중요시 된다. 일의 깊이가 없다. 이러다가는 사회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정도까지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다. 실패는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일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좋기를 기대하는 사람 마음이다. 그러나 결과가 좋게 나오리 없고, 이제부터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 시작한다.

또 하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은 이기주의이다. 전체의 조화에 의한 '공동선의 추구' 보다는 소아병적 개인의 이익추구에 더욱 길들여져 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단계적인 사고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NIMBY 현상까지 거론 안해도 교차로에 신호등만 고장나면 차가 엉키게 되는 사회다. 여기서 이러한 적당주의나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모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주체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경에 대한 언급이 자칫 자신의 문제를 객체화 시키면서 또 한번 남에게 전가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다.

적당주의와 이기주의의 보다 깊은 내면속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의 소아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 남의 생명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생각한다.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했을 때 명예나 자존심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치부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의식구조나 다를 바가 없다.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일을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자존심,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탓 남의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얼어 죽어도 곶불을 찌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이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자존심과 명예를 이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양기**